

2024. 5. 26.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사무엘상 1 Samuel 9:1-14

제목: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표준새번역) 9:1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랏이고, 그 윗대는 아비아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ESV) 9:1 There was a man of Benjamin whose name was Kish, the son of Abiel, son of Zeror, son of Becorath, son of Aphiah, a Benjaminite, a man of wealth.

9:2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9:2 And he had a son whose name was Saul, a handsome young man. There was not a man among the people of Israel more handsome than he. From his shoulders upward he was taller than any of the people.

9:3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 보라고 말하였다.

9:3 Now the donkeys of Kish, Saul's father, were lost. So Kish said to Saul his son, "Take one of the young men with you, and arise, go and look for the donkeys."

9:4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9:4 And he passed through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passed through the land of Shalishah, but they did not find them. And they passed through the land of Shaalim, but they were not there. Then they passed through the land of Benjamin, but did not find them.

9:5 그들이 쉘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9:5 When they came to the land of Zuph, Saul said to his servant who was with him, "Come, let us go back, lest my father cease to care about the donkeys and become anxious about us."

9:6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줄지도 모릅니다."

9:6 But he said to him, "Behold, there is a man of God in this city, and he is a man who is held in honor; all that he says comes true. So now let us go there. Perhaps he can tell us the way we should go."

9:7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 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 있는 것이 좀 있느냐?"

9:7 Then Saul said to his servant, "But if we go, what can we bring the man? For the bread in our sacks is gone, and there is no present to bring to the man of God. What do we have?"

9:8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9:8 The servant answered Saul again, "Here, I have with me a quarter of a shekel of silver, and I will give it to the man of God to tell us our way."

9:9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9:9 (Formerly in Israel, when a man went to inquire of God, he said, "Come, let us go to the

seer," for today's "prophet" was formerly called a seer.)

9:10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9:10 And Saul said to his servant, "Well said; come, let us go." So they went to the city where the man of God was.

9:11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9:11 As they went up the hill to the city, they met young women coming out to draw water and said to them, "Is the seer here?"

9:12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9:12 They answered, "He is; behold, he is just ahead of you. Hurry. He has come just now to the city, because the people have a sacrifice today on the high place.

9:13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9:13 As soon as you enter the city you will find him, before he goes up to the high place to eat.

For the people will not eat till he comes, since he must bless the sacrifice; afterward those who are invited will eat. Now go up, for you will meet him immediately.”

9:14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9:14 So they went up to the city. As they were entering the city, they saw Samuel coming out toward them on his way up to the high place.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표준새번역) 출애굽기 13:21 주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 길을 비추어 주셨다.

(ESV) Exodus 13:21 And the Lord went before them by day in a pillar of cloud to lead them along the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that they might travel by day and by night.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기 블랙스버그한인교회까지 오신 걸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여기 있는 학교에 오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함 없이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오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는 ‘목자와 양’의 관계일 겁니다.

(표준새번역) 시편 23: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으리다.

(개역개정) 시편 23: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SV) Psalm 23:1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NIV) Psalm 23:1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분명하신데,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움이 남는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사울을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통해 바로 알고 오해하면 안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2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해하면 안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첫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성공, 기쁨, 명예 뿐 아니라

✓ 실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는 길로 데려 가신다구요? 네!

9:3 절. 사울은 아버지가 시켜서 암나귀 몇마리를 찾아나섭니다.

9:3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 보라고 말하였다.

9:3 Now the donkeys of Kish, Saul's father, were lost. So Kish said to Saul his son, "Take one of the young men with you, and arise, go and look for the donkeys."

9:4 절. 다른 지파 땅까지 들어가서 찾아봅니다. 산간 지방과 평지 지방까지 두루 차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실패로 이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입니다.

9:4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녔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녔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9:4 And he passed through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passed through the land of Shalishah, but they did not find them. And they passed through the land of Shaalim, but they were not there. Then they passed through the land of Benjamin, but did not find them.

5 절,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9:5 그들이 쉘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9:5 When they came to the land of Zuph, Saul said to his servant who was with him, "Come, let us go back, lest my father cease to care about the donkeys and become anxious about us."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데도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우정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투자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실패 같은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오해이며, 착각이며, 성경의 약속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갑시다.

- 이 실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입니다.

- 이 실패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유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그 실패도 지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실패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날 하나님께 물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실패를 지나가게 하시나요?

- 그 실패를 통해 다음 기회로 인도하십니다.

사울의 경우, 암나귀를 못찾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교회 원서를 내고, 인터뷰 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교회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생활비가 모자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차, 비디오 가게에서도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로 건너 온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상담 공부할 때, 어느 상담 대학원에 원서를 내고 면접도 봅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하러 온 겁니다.

실패하면 아픕니다. 실패하면 쪽팔리지요, 실패한 상처는 오래가지요, 자존심 상하지요, 자존감을 깎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아픔, 그 쪽팔림, 그 깊은 상처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됩니다.

우리같이 고집 센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파야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깊은 상처이어야만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여기로 오신 겁니다.

실패마저도, 거절마저도, 좌절마저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실패를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이제 곧 만나실 겁니다. 사울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던 것 처럼, 작은 실패를 통해, 아픈 좌절을 통해, 자존심 상하는 포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곧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표준새번역) 로마서 8:28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ESV) Romans 8:28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도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해하면 안되는,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두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 내게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 마음이 가는대로 행동해!’라고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의 정점에 ‘꿈’, ‘비전’,
 이라는 것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삶을 ‘자아실현’이라고, 인생의 목표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 비전, 자아실현 등에는
 공통된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어울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알고 있고, 내가 바른 목표를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예화: 사이클 선수들의 운동

자전거를 빨리 달리게 하는 것은 다리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싸이클 선수들의
 허벅지는 엄청난 근육량을 자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림픽 싸이클 경기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설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싸이클 종목에서는
 특히 장거리로 갈수록 다리와 허벅지 근육보다 상체



근육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체가 흔들리지 않고 자세를 잡아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체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금방 지쳐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경기에서 하체근육이 좋은 사람이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해설자가 지적한대로 흔들리지 않는 상체를 유지한 (그 당시) 무명의 선수가 1등을 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이 멋진 삶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되는 의미는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그것을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욕망의 대상인 돈과 재물에 대하여
 마 6:24 절의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수 없습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6: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ESV) Matthew 6:24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사실 그렇게 재물, 혹은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향해
 살아도 그것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인기를 모두 다 가져도 잠시 기분 좋고,
 잠시 몸이 편한 정도일 뿐입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메며 다녔지만
 찾지 못한 '실패'가 하나님의 인도이듯이, 하나님은
 사울이 원하는 암나귀가 아니라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주십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칭찬을 추구했지만,
 사울을 아시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칭송과 복종을 주십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았다고
 해서 사울의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암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암나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의 자세가 있다면 이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표준새번역) 로마서 12:2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ESV) Romans 12:2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기도: 하나님 앞에서

➔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실패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 나를 업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 잡아 주소서**

→ 나의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충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소서, 나를 맡겨 드립니다.